

“2025학년 자유전공 입시결과 궁금해요”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거주
경기 화성시
청계동


자녀
N수생, 고2


구독 기간
1년

〈내일교육〉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작년에 첫째가 고3, 둘째가 고1이었는데 학원에 갔다가 비치돼 있던 〈내일교육〉을 읽게 됐어요. 학생부 위주의 전형 을 고려하던 차에 대입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어 구독했어요.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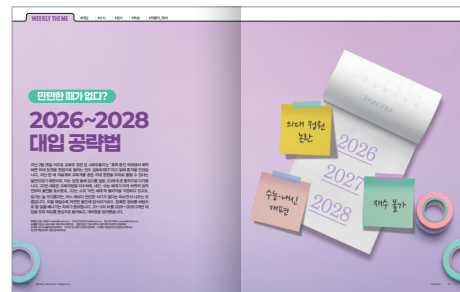


112호

쌤과 함께! 교과 연계 적합서, 화학 ②

〈화학 I〉 산과 염기

“교과 연계 적합서’ 시리즈는 열심히 읽는 기사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나 단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관련 책을 찾아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읽어요.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고 독서 활동을 연계했는지 알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돼요.”



1174호

WEEKLY THEME 만만한 때가 없다?

2026~2028 대입 공략법

“둘째가 고2인데 재수 없이 대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매년 변수가 가득한 대입과 학년별 고민거리를 골고루 다뤄줘서 좋아요.”

〈내일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시기에 맞춰 대입 정보를 소개해줘서 도움이 돼요. 전공이나 과목에 따라 책을 소개해주는 ‘교과 연계 적합서’ 기사를 읽은 후 아이에게 도움이 될 책을 건네주기도 했어요. 목차를 살펴보고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죠. 합격생이 관심사를 독서 활동과 어떻게 연계해 학생부에 녹여냈는지도 알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요. 같은 책이라도 학생에 따라 교과와 연계한 과정이나 주제를 끌어내는 방식이 달라 읽으면서 감탄하곤 해요.

자녀 교육과 관련해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큰아이의 내신 성적이 2등급 중후반이라 수시에서 지원할 대학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수업도 학교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성적의 위력을 이길 수 없었어요. 평소 잘하던 〈물리학 I〉을 수능에서 3등급을 받아 수시와 정시 모두 쓴맛을 봐야 했어요. 올해는 ‘사탐 런’도 고민했는데 아이는 사탐이 더 자신 없다고 해서 아직 지켜보는 중이에요. 교육 정책에 따라 변수가 많다 보니 여러모로 혼란스럽네요.

〈내일교육〉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나요?

작년에 자유전공이 확대되면서 기존 학과의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첫째 아이가 지원한 곳도 생각보다 추가 합격이 적더라고요. 올해 고2가 된 둘째는 인문 계열이라고 생각했는데 고1 때 사회 교과보다 수학이나 과학 교과 성적이 잘 나와 예상치 못하게(?) 자연 계열 진학을 생각하는 중이에요. 아직 확실하게 진로를 정하지 못한 터라 자유전공을 눈여겨보고 있죠. 작년에 확대된 자유전공의 입시 결과를 분석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Reporter's A/S

자유전공은 모집 규모가 타 모집 단위에 비해 큰 데다 진로가 뚜렷하지 않은 수험생에게 꽤 매력적입니다. 1172호 ‘위클리 테마’에서 ‘2025 대입 예측이 빛나갔던 이유’를 분석하면서 자유전공을 다뤘습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유전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본지 1172호 위클리 테마
‘예측 완전히 빛나갔다
2025 대입 이번 속출, 왜?’
기사 참고

